

News

'거꾸로 전략' 인터넷은행은 대출 늘었다

중앙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올해 들어 대출액 2조원 넘게 증가... 대출 금리 상승에 고신용자 빚투 열기 꺾였으나 중·저신용자가 인터넷은행으로 몰린 영향
총 36조 1,429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7.9% 증가... 은행별 1분기 대출잔액은 토스뱅크 1조 8,000억원, 케이뱅크 7,200억원, 카카오뱅크 1,037억원 증가

10억 대출·연 3% 나왔다...카카오뱅크, 주담대 제한 풀렸다

매일경제

카카오뱅크, 5일 오후부터 주담대 제한 해제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초과도 가능해져...
최저 3.01%(변동금리, 5일 기준)으로 대출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져... 올해 말까지 대출 실행한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

토스뱅크 금리인하요구 건수, 시중은행 대비 40% 높아

경향신문

토스뱅크, 작년 10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금리인하요구 건수 총 24,910건으로 집계...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기준 17,809건 보다 40%가량 높아...
토스뱅크 고객들, 자신의 신용도 개선 여부 알지 못하더라도 앱내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 제안 받을 수 있어... 고객 37.5%가 금리 인하 혜택 향유

연준 부의장 "이르면 5월 양적 긴축 시작...더 강한 조치 준비"

헤럴드경제

미국 연준 부의장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다음달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 시사...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언급
오는 5월 3~4일 FOMC 정례회의 언급하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빠르게 축소 및 금리 연속으로 올려 긴축 계속할 것" 언급... 한번에 기준금리 50bp 인상 논의 예정

보험사, 지난해 대출채권 266.1조...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연합인포맥스

보험사들, 대출채권 잔액 총 266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조 7,000억원 증가... 작년 2분기 증가폭인 5조 2,000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
다만 가계대출은 128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 주담대 49조 7,000억원 수준... 작년 말 기준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연체율 0.13%

푸르덴셜생명보험, 자회사형 GA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이코노미스트

푸르덴셜생명보험, GA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전체 전속 설계사와 함께 초기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6월 중 공식 출범 예정 발표
설계사 명칭도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로 변경... 자산과와 법인 및 전문직 특화시장으로 고객 접점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예정

'2살' 된 카카오페이궤 "연내 카톡으로 주식거래...세뱃돈도 주식으로"

뉴스1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2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MTS 정식 서비스 개시한다는 계획 발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도 확대 제공
상반기 중에는 주식 선물하기도 카톡으로 가능... 다만 해외주식 서비스에만 적용... PF와 IB 역량 확대해 수익성 높인다는 투트랙 전략도 공개

NH궤, '원스토어·SK궤터스' 업고 IPO 자존심 회복 시동

데일리안

NH투자증권, 내달 원스토어와 SK궤터스 공모 청약 들어가고 하반기 마켓컬리 주관 예고하며 IB 강자 면모 기대... 올초 LG에너지솔루션 이후 4개월 만
공모일정부터 오버행 이슈까지 체크 중...공모 청약일 내달 2~3일, SK궤터스 9~10일로 최상의 흥행 염두해둔 포석... 하반기 공모 시장 휩쓸겠다는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